

류현진, 2020년 토론토 1선발로 새 출발

토론토 공식 입단식...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한 구단" 팀 내 현역 최고연봉자·역대 최고액 FA 투수 등극

류현진(32)이 살짝 미소 지으며 "헬로(Hello) 캐나다, 봉주르(Bonjour)"를 외쳤다.

새로운 소속팀이자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캐나다를 연고로 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연고지를 고려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은, 류현진의 첫인사였다.

토론토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저스센터에서 류현진 입단식을 열었다.

이날 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관계자와 가족,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한 뒤 "토론토에 입단해 기쁘고, 토론토도 내 영입에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류현진은 아내 배지현 전 아나운서와 함께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둘러보고, 마크 사파이로 사장, 로스 애킨스 단장, 찰리 몬토요 감독 등 구단 관계자와 인사했다.

구단 역사상 자유계약선수(FA) 투수 최대 규모인 4년 8000만달러를 투자해 류현진을 영입한 토론토는 입단식도 '1선발'에 걸맞게 성대하게 열었다. 입단식에는 사파이로 사장과 애킨스 단장,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도 참석했다.

류현진은 "2013년 미국 진출 후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아닌 팀의 유니폼을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영웅 웨인 그레츠키의 등 번호인 99번을 그대로 달게 했다. 류현진은 토론토 역사상 99번을 단 최초의 선수다.

구단 사장과 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류현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토론토와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다"라는 사파이로 사장의 말처럼, 구단과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류현진은 "토론토는 무척 좋은 팀이다. 뛰어난 기량의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토론토는 2019시즌이 끝난 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첫 번째로 생각했다. 그래서 계약했다"고 토론토 영입 배경도 밝혔다.

토론토는 한국 교민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더 류현진의 입단이 화제다. 류현진은 "2013년에 왔을 때도 응원 많이 받았다. 한인 팬들이 더 자주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현진이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은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 연합뉴스

류현진은 구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투수는 아니다. 하지만 정교한 투구로 올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의 놀라운 성적을 냈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

젊은 선수가 많은 토론토는 노련하고 정교한 피칭을 하는 류현진 영입에 힘썼다. 류현진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대도 담았다.

류현진은 "빠른 공은 가운데로 던지면 맞을 수도 있다. 나는 늘 제구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던졌다"며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 뛰는 건 내게도 영광이다. 서로 다가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제 류현진은 '토론토 1선발'이다. 평균 연봉(2000만달러)을 기준으로 하면 트로이 톨로워츠키(연봉 1400만달러)를 넘어 토론토 현역 최고 연봉자다.

역대 토론토 투수 중에서도 2006년 5년 5500만달러에 계약한 A.J. 버넷을 제치고 '최고액을 투자한 FA 투수'로 올라섰다.

류현진은 "이제는 토론토가 나의 팀이고, 로저스센터가 나의 홈구장이다. 우리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류현진의 목격한 다짐에 토론토 사장, 단장 등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실현 선거준립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공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공정·투명하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결의대회 선거준립 결의문 낭독 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7일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실현 선거준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실시되는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공명정대한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 도·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공

정선거지원단, 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체육회를 대표해 도체육회 정찬식 운영부장이 선거준립결의문을 낭독했고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송명근 지역체육단체 선진화TF팀장의 공정선거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선취기자 sunny@ihalla.com

기성용 올해 최종전도 결장 전 소속팀 '셀틱' 복귀설 솔솔

새로운 등지 찾기에 나선 기성용(뉴캐슬)이 올해 마지막 경기마저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뉴캐슬은 29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졌다. 최근 2연패를 당한 뉴캐슬(승점 25)은 에버턴(승점

25)과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11위로 떨어졌다.

이미 구단으로부터 이적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기성용은 이날도 출전 선수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내년 1월 이적이 예상되는 기성용은 자신이 몸담았던 셀틱(스코틀랜드) 복귀설이 돌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뉴캐슬은 에버턴의 도미니크 칼버트 르윈에게 멀티골을 얻어맞은 가운데 파비안 셰어가 득점포를 터트렸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연합뉴스

호날두의 꿈은 영화배우 "할리우드 진출하고 싶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에게 새 목표가 생겼다. 호날두는 29일(한국시간) 스페인 일간 마르카와 인터뷰에서 은퇴 뒤의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축구 실력 만큼이나 화려한 패션 센스를 과시해온 호날두는 연예계로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영어 공부나 할리우드에서 영화 찍기 등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개인 최다 5회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롱도르를 5차례나 받은 호날두는 축구에서는 더 이룰 게 없어 보인다.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여전히 원하지만,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산을 배경으로 날아오른다 28일(현지시간) 독일 오버 스트 도르프에서 열린 포 힐스(Four-Hills Ski Jumping) 토너먼트의 두 번째 훈련 점프에서 독일의 피우스 파스케가 멋진 점프를 선보이고 있다. 포 힐스 토너먼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연달아 열리는 4개 대회 시리즈를 뜻하며 1963년 창설됐다. 연합뉴스

2019년 제주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생 만족도 90%이상이 보증하는 양질의 교육훈련 과정!

참여교육생 1,615명

채용인원 4개 과정 34명

참여협약기업 924개사

2020년도에는?

36개 과정 1,544명

□ 제주한라대학교(T. 064-741-6725)			□ 제주관광대학교(T. 064-754-5860)		
대상	훈련과정수	인원	대상	훈련과정수	인원
채용예정자	2	30	채용예정자	2	35
재직자	10	475	재직자	6	445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T. 064-754-7156)		
대상	훈련과정수	인원
재직자	16	559

*** 교육훈련비 전액무료

2020년도 도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제주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l. 757-2165 Fax. 757-2168 홈페이지 http://jeuhrd.or.kr